

紐帶

# 유대

band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 CONTENTS

## 유학대학 소식 02

- 제6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 2017년 동양철학·문화연구소/유교문화연구소/코어사업단 학술대회
- 2017학년도 2학기 립관헌 장학금 수여식
- 동양 문화 고급과정- 2017년 추계학술답사

## 우수논문상 수상 04

-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 우수논문상 수상

## 특별 인터뷰 05

- 충북대학교 철학과 원용준 교수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장선아 교수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김유곤 교수
- 경상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

##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 10

유학대학 제 33대 학생회를 소개합니다.

## 글로벌 유학대학 11

대만 글로벌캠프, 필리핀 어학연수 파견, 칭화대학교 파견

## 우리는 유학대학 Family 12

신입직원(김성은) 인터뷰

## 선배들의 진로이야기 13

2018년 취업 성공 졸업생 인터뷰(이신유, 차성현)

## 알립니다 15

발행일 2018년 3월 1일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 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신정근  
 편집 채희철 김성은

## 유학대학 소식

### 제6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큰 꿈을 품고 한양을 향했던 조선 선비들이 급제를 받으며 도성을 돌던 풍습을 이어 학기마다 순성놀이를 하고 있다. 2017년 11월일 토요일 이른 아침, 벌써 6회를 맞이한 순성놀이가 시작되었다. 퇴계인문관을 출발하여 말바위 전망대를 거쳐 숙정문에 오르자 탁 트인 전망과 서울의 울타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도성 곳곳에서 느껴지는 조상들의 숨결과 현대 도시로 변모한 서울의 지태를 동시에 감상하고 있으니 그 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격동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백악 구간을 지나 창의문에 이르러야 이번 순성놀이가 끝이 났다. 제6회 순성놀이는 옛 조상들의 풍습을 이어받아 직접 체험해 보고 만연한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자 유학대학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순성놀이는 졸업 이후에도 유학대학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소중한 공통 기억의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동양철학·문화연구소/유교문화연구소/코어사업단 학술대회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와 동양철학·문화연구소는 성균관대 코어사업단과 함께 6월 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발표는 정세근(충북대) '운명론과 윤리', 박재현(동명대) '운명과 자유의지를 보는 선(禪)의 시각', 이애란(성균관대) '다산의 운명관과 자유의지', 양일모(서울대학교) '무위자연론에서 인간의 위치', 강용수(고려대학교) '운, 정의 그리고 행복', 강상진(서울대학교)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서양 고중세철학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17학년도 2학기 립관헌 장학금 수여식



'2017학년도 2학기 립관헌 장학금 수여식'이 2017년 10월 31일 유학대학 장실에서 진행되었다. 립관헌장학금은 본교 법률학과(56학번)을 졸업하고 현재 유학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립관헌 동문(전 북미주연합동 문화장)이 기금을 출연하여 유학대학 학사과정 학생들에게 매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최정호(유동 12), 윤지영(유동 15) 학생에게 각 170만원에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수여식에는 립관헌 동문과 신정근 유학대학장, 최일범 교수, 김성기 교수, 김도일 교수, 백영선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립관헌 동문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전 립관헌장학금을 수혜 받은 황준호(유동11) 등 6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립관헌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동양 문화 고급과정- 2017년 추계학술답사



2017년 12월 3일 경기도 이천의 황우요에서 도자기 체험(차 사발 만들기)을 하였다. 성균관대 동양문화고급과정은 2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학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과정으로서, 유학대학 교수와 해당과목 학계 권위자를 초빙하여 직강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수강 가능하다.

##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회의 우수논문상 수상

사업단명	사업단장
유학 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 (LAB)	신정근 교수

**1.** 2017년 9월 24일 중국 복단대학 상해유학원과 동 대학 철학원이 공동개최한 <제1회 한중일 박사과정 동아시아 유학 국제학술회의>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 강교희, 이창규, 이원준 학생이 참가했다. 학술회의에는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3인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10명(복단대학 철학학원 6, 청화대학 철학과 2, 중산대학 철학과 2) 대만 2명(대만대학 철학과 2), 일본 3명(동경대학 2, 경도대학 1) 등 모두 18명의 학생이 “한·중·일 유학의 문제”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발표 종료 후에 진행된 우수논문 선정에서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소속의 이창규와 강교희가 각각 1등장과 3등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 2017년 11월 21일 중국 산둥대학에서 산둥대학 문예미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이 “东亚哲学与生态美学”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6인과 산둥대학 6인 및 일본과 프랑스 각각 1인, 모두 14인이 발표했다. 논문발표와 종합토론을 마치고 학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학생 우수논문 선정(2인) 및 시상식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소속의 박사과정생인 박지혜, 서희연 학생이 각각 「从生态视角看山水画艺术-以濯足画题为中心」과 「论王淑建筑哲学所蕴涵的老子生态美学」이라는 논문으로써 두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외 학술회의		
	국내	국제
개최수	5회	4회
개최지	성균관대	중국
참여대학원생 발표자 수	15명	16명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총 18회 미주,아시아권 석학 및 전문가 초청강연 진행.

## 타 대학 전임교원 인터뷰

'유대(紐帶)' 3호에서는 최근 타 대학에 임용된 유학대학 출신 교수님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유학대학에서 다양한 학문과 연구 경험을 쌓으신 교수님들이 우리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철학과  
원용준 교수



제가 공부를 계속하게 된 까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 2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한 친구가 전공스터디를 만들었는데 제게도 함께 하자고 권유한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스터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무 실력도 없이 원서를 읽겠다고 도서관에서 카드를 찾아 책을 빌리고 추운 강의실에서 조그만 한자사전을 뒤적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읽던 경험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도서관 서고의 책을 빌리려면 종류별로 카드가 담겨 있는 서랍장에서 해당 도서의 카드를 찾아서 신청해야 했어요. 추운 강의실에서 네 명의 풋내기가 한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그 책은 「묵자」였습니다. 아마 한글로 읽었으면 아무 감동도 느끼질 못했겠죠. 그것이 원서가 주는 힘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네 명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 지금도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재밌지는 않았다는 것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석사과정 때 일입니다. 사실 저는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의 시간벌기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수업과 스터디에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재미있고 잘하는 거예요. “어라! 나도 잘하네!”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 해 겨울에 원하는 직장 에 내정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고민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계속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땐 몰랐지만 이후 저는 수많은 동양철학, 유학의 지혜들과 만나면서 감동하고 좌절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Q. 소식을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과에 88학번으로 입학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충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원용준입니다. 박사학위는 외국에서 받았지만 유학기간을 제외하면 학교에 다닌 기간만 20년이 넘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하니 매우 설레고 또 반갑습니다. 모쪼록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어려운 질문입니다. 뚜렷한 이유를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동양철학, 유학을 평생의 공부로 삼겠다는 각오는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막연한 호기심에 선택했는데다가 입학하고 보니 “이 전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야”라는 마음까지 생겼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Q.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보내신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A.**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20년 넘게 유학대학에서 보내다 보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어렵네요. 지금은 없어진 유학대학 건물물에서 추위에 떨며 수업을 듣던 것, 명륜당 양현재 그 작은 방에서 꾸겨져 지던 것(지금은 문화재로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유학대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했어요), 친구들과 선배들과 명륜당 앞에서 막걸리 마시며 밤 새던 것, 최루탄 연기 가득한 대성로에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전경들과 대처하던 것, 대학원 수업에서



지적받고 얼굴이 벌개졌던 것, 칭찬받고 으쓱했던 것, 처음으로 강의할 때 바짝 얼어서 강의실에 섰던 것, 국제학술대회 사회를 맡아 세계적 학자들 앞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던 것, 비좁은 연구소 공간에서 밤새가며 일하고 공부하던 것 등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제 삶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Q. 교수님께서 공부하시거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A.**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악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학생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감동하는 것 아닐까요? 유학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어떤 주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도서관에서 한 중국 연구자의 논문을 읽었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고 오후 내내 멍하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막고야산에서 신선을 만난 요임금이 그 충격으로 자신이 다스리던 천하를 잊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뭐든 잘 감동하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감동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책상을 일어나 학교를 몇 바퀴 돌아다녀야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제게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성취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모임이 있어 주말에 성대에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끔 멍하니 교정을 돌아다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또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석사를 마치고 진학하지 못하고 몇 년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의지도 취직하려는 의지도 없어서 삶을 방향을 잃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런 상태로 지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결심했지만 이것도 내리 몇 년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겼는데도 백수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자신을 다시 찾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내가 원래 하고자하

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내가 해야 할 길을 찾은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유학대학의 공부는 어렵습니다.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회가 쉽게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취직이 잘 되는 전공, 사회가 원하는 전공이 아닙니다. 학부만 다니고 취직을 하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공부해보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사람이 왜 군자인지" 비로소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장 선 아 교수



**Q.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유학동양학부,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에게 '동문'이란 훌륭한 멘토였으며 좋은 스승 이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 더욱 더 높은 역량과 기량을 드러내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흠을 빚으며 돌을 깎는 조각가입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사유와 지각행위가 회화적 구도나 흙 덩어리의 양감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창작의 기본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인문과 예술, 나아가 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통섭(通涉)형 인간'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현대 예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던 주된 이유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의 조화를 통하여 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 철학이 저의 예술 작업의 뼈대를 채워주고 불필요한 살점은 덜어내며 몸통을 완성시켜가는 기초작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보내신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A.** 입학 초, 퇴계인문관에서 양현재 수업을 들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 경전을 처음 접하게 되어 당황하였었는데, 다행히 입학 동기들과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간 수업을 받으러 기차를 타고 대구서원을 향하고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소리 내어 경전을 외우다가 상대방의 경전을 쫓아 본인의 진도를 잊어버리며 서로를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철학을 비롯하여 무용, 미술, 사진, 음악 등 여러 장르에 대해 많이 배우고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또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A.** 전통적인 인문과 예술에 대한 관점을 달리 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의 체험, 표현행위를 접목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목표입니다. 기존의 인문 강의나 단순한 예술 참여, 제작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으로, 확장된 영역에서의 인문과 예술의 만남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시대의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술 철학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전해드리면,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익힘(溫故而知新)의 관점이 '옛 것'에 있다면 '옛 것을 빌려 지금을 열(借古以開今)'은 '지금'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古)는 금(今)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지금의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옛 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과 창작의 문제에 대해 공자와 석도(石濤)에 관한 의견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이 다르지만 특히 석도는 자유로운 창작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창작 정신에 기반한 활동(예술, 철학 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김 유 곤 교수



**Q.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보내신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A.** 학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8년 동안 내리 양현재에 기숙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여학생이 기숙하는 서재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전주가 고향이기에 무료인 양현재 기숙과 또한 등록금 면제 혜택은 저에게 절실했습니다.

1996년 3월, 1학년을 대상으로 양현재 장학생 선발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고, 10여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1학년 대표로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으로 선발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5년 양현재 조교가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기들 중 꼴찌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내 뒷사람과 근소한 점수 차이였다는 사실을...

**Q. 교수님께서 공부하시거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A.** 아무래도 전북대 윤리교육과에 임용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25살 1학년 수업 시간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 공부는 적어도 20년은 해야 알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시기에, 그러면 20년 후에 교수가 되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생활이 팍팍할 때면 푸념처럼 언제 교수가 되냐고 물으면, 겉으로는 당당하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약 없이 45살이라고 대답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45살이 되던 2016년 가을 무렵에 제 전공과 관련해서 세 개 대학에서 공고가 났고, 처음으로 원서를 제출했는데 운이 좋게도 전북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학술회의 관계로 가게 된 일본의 어느 음식점에서 사케 한 병을 추가 주문하면 안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었습니다. 십 여 명이 함께한 자리였는데 처음에 저만 무료 선택권을 뽑았습니다. 이후 한 병을 더 주문하여 추천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만 무료 선택권을 뽑았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빠!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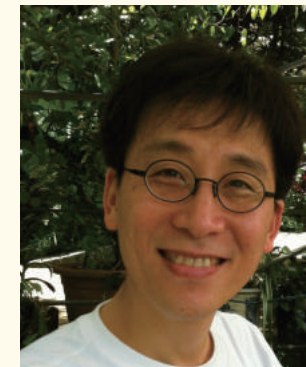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또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선배님께서 임용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축하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실히 준비한 데 대한 정당한 답을 건져 올리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이 아닌 걸 알죠? 그만큼 행운도 함께 했었다는 의미. 늘 감사하며 지내실 줄 믿어요. 애정에 바탕 한 교육과 성실한 연구, 이런 거 잘하는 교수도 있다고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과 연구에 성실하게 임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의 윤리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선생으로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논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 빠르게 이루려고 하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에 빠지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했다면 그 꿈을 향해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대학교 철학과  
김 형 석 교수



**Q. 소식을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89학번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동양철학과에서 석사를 마쳤고, 유학과에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경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중입니다.

**Q.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노장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시절 장자의 몇몇 구절을 읽고

그 ‘자유로움’에 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보내신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A.** 저는 양현재에서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균관 동재와 서재에서 4년동안 생활을 하면서, 퇴계와 율곡과 단재 등 이름만 듣던 선배들이 생활했던 그 곳에서 호흡하고 공부한다는 점이 신기하면서 때론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곳에서 유학대학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나누고, 학문과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던 감사한 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Q. 교수님께서 공부하시거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A.** 공부나 연구를 하면서 단계별로 작은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순간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경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을 꼭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논문이나 책이 나올 때, 시험을 통과하거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기쁘고 설레이면서도 저의 부족함이 자각되면서 늘 두려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또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A.**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제 삶의 원칙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세요. 선후배님들 동기들과 토론도 많이 하세요. 스스로의 삶에 정직하고, 자신에게 투명하게 집중하면서, 현재의 공부와 과제에 몰두하시고 학문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학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

꿈과 미래 **DREAM!** 해낼 수 있는 자신감 **DO!** 학우에게 다가가는 학생회 특투유!

제 33대 유학대학 학생회 **특투유** 소개합니다.

**Q. 유학대학 학생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유대(紐帶) 독자 여러분! 저희는 제33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인문과학계열 2반 공동학생회 '특투유'의 학생회장 유학·동양학과 16학번 정은경, 부학생회장 인문과학계열 17학번 김세진입니다. 유학대학 소식지 '유대(紐帶)'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학생회 '특투유'는 작년 12월에 선출된 이후로 열심히 유학대학 학생자치활동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입학할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할 유학대학 학생사회를 위한 여러 행사와 사업들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의 슬로건은 '너에게 특(Talk!) 나에게 특(Talk!) 우리에게 특(Talk!) 특특특 특투유!'입니다. 학생회의 이름과 슬로건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학우들과 소통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Q. 학생회를 하게 된 계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희만의 학생회를 세워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전의 학생회는 각자만의 색깔이 존재하고 또한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었기에 학생자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겠지요. 저희도 위의 선배들을 보기도 하고 이전에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만의 학생회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만의 특특 튀고 밝은 느낌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가고 학우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유학대학은 하나의 '마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는 그 중간에서 집을 관리하고 마을을 책임지며 마을을 주도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학대학 내의 소모임들은 마을의 집이 되고, 유학대학 학우 여러분들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되겠죠. 저희 학생회는 마을회관처럼 위에서나 아래서가 아닌 유학대학의 중심에서 학우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 성실한 역할 수행을 통해 곧 마을의 번창, 유학대학의 번영을 이끌고 싶었고, 마을 주민 개개인들, 유학대학 학우분들 개개인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학생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 저희 '특투유'는 '특투YOU, 특투儒, 특투University' 세 가지 핵심 정책 분야

를 바탕으로 사업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투YOU' 분야의 정책으로는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오락행사 추진 등이 있는데요, 학부생과 교수님, 동문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학대 아우름제 추진'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투儒' 분야의 정책으로는 학우들이 유학대학에게 평소 바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학우들 간의 친목과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유학대학 대나무숲 竹林 부활, 학우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서적/교양서적 교재 대여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투University'의 정책에는 학우들과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교내 근로자분들께 따뜻한 간식과 함께 저희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톡스터치(Talk's touch)'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학대학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과 다짐 한 마디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제33대 유학대학/인문과학계열2반 공동학생회 특투 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믿고 뽑아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유학대학 학우들에 더하여 교수님,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동문들과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서 지지치 않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1년동안 여러분들과 으쌰으쌰 유학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학대 사랑합니다~!



## 글로벌 유학대학



### 대만 글로벌 캠프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26일 간 글로벌 캠프를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매년 1회 진행되는 글로벌 캠프는 유학·동양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이 유교, 불교, 도교와 관련된 유적지를 견학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 및 서원에서 학술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만 타이베이 지역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법고산사 체험프로그램, 정성공문묘 및 공묘 견학 등으로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대만중앙연구원·대만대학·문덕서원을 방문하여 대만의 석학들과 교류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연구내용 및 성과를 구득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사업단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보완 및 개선할 예정이다.



### 칭화대학교 파견

유학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유학대학 학생들의 중국철학에 대한 학습 및 중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중국 칭화대학교 철학과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학년도 참가자 선발을 위해 10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철학에 관심이 있는 유학·동양학과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20여명이 지원해 중국어 회화 능력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부생 4명과 일반대학원생 7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칭화대학교에서 중국철학과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종강 후에는 필드트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중국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에서 현지 교수님들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겨울학기 전공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 2018학년도 겨울학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 필리핀 어학연수 파견

유학대학은 이번 2017학년도 겨울학기에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소재에 있는 AELC 어학원에 학부생 5명과 일반대학원생 2명을 파견하였다. AELC어학원과 영어연수 지원 협약을 맺고 2015학년도에 우수학부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올해까지 세 번째 진행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평일에는 1:1 수업과 그룹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말에는 어학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액티비티 활동에 참여하였다. 유학대학은 학부,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내 학생의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 신입직원 인터뷰 김성은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대학행정실 직원 김성은입니다. 올해 유학대학 행정실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학, 학생, 환경개선과 행정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시며 필요하실 때 편하게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교직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의 첫 직장은 증권사였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거나 트렌드를 발굴해내는 증권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근무를 하다보니 수익과 효율성을 좇는 기업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제 자신이 고갈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1년간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의 연구 발전과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우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Q.** 앞으로 유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실 생각인가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학문의 장인 대학이 저의 직장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학문적 자극에 깨어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최대한 학생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도 대학 생활 동안 교직원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칙은 지키되 학생 분들의 편안한 대학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유학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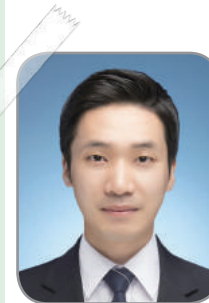
유학대학에서의 시간을 밑거름 삼아 평생의 목표를 세우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동안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유학대학 학생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학대학에는 순성놀이 나 양현재 특강과 같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분명 자아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취업 성공 졸업생 인터뷰

이신유(유학·동양학과 12학번) | 차성현 졸업생(유학·동양학과 12학번)



유학대학 소식지에서는 유학대학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유대 3호에서는 2018년 신입사원이 된 졸업생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대학 학우 분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신유 졸업생(유학·동양학과 12)  
LG 디스플레이 2018년 입사

**Q.**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동학과 12학번 이신유입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Q.** 유학동양학과에서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동기들과 새내기배움터를 기획하는 일을 했을 때가 생각합니다. 학과의 모든 소모임과 기획단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면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해 새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새터가 끝나고 모든 기억들은 추억으로 남았고 아직도 동기들과 그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Q.**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면접 전에 긴장을 맞이해서 어깨와 등에 통증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의 조언을 받아 복식호흡과 사우나 찜질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자기계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장단기 목표가 있으실까요?

원래 계획을 세우고 사는 편이 아니라 특별한 자기계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단기 목표가 있다면 우선 단기적으로 저를 채용한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자는 저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풍수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각자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다 고작 몇 살 더 많은 제가 조언을 한다니 부끄럽네요. 각자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꿈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돌아보면 저는 거창한 꿈도 없었고 내세울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오가는 모든 일상들에 애정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큰 목표가 있고 꿈을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과 주위사람들에 애정을 가지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꿈을 찾는 모험자입니다. 카페 디엠! 후배님들 오늘을 즐기세요!!



## 선배들의 진로이야기



**차성현 졸업생** (유학·동양학과 12)  
현대제철 2018년 입사

### Q. 소식을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학동양학과 12학번 차성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 Q. 유학동양학과에서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유학동양학 수업 중 '한국의 종교와 문화' 수업에 참여했을 때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3박 4일 순창에 있는 한 서당교육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수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오늘날 머리속에 지식을 넣는 것만으로 일관하는 공부에서 결핍되기 쉬운 인성회복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벗삼은 명상 수업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 Q.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취업 시즌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럴때 일수록 가까운 지인을 자주 만나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거나 꾸준히 시간을 내어 여행을 가서 마음의 짐을 털어내었습니다.

### Q. 앞으로 어떤 자기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장단기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앞으로 글로벌 HR전문가가 되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지식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평소 중국어 공부를 좋아하기도 했고 앞으로 다닐



회사에 중국법인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르려고 해요.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 Q. 각자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을 해야할지 고민했는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확신을 갖고 힘차게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ㅎㅎ 평소 이말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면서 되새기는 데요. '내일이면 추억이 될 오늘을 위하여' 우리 모두 지금 이순간을 사랑하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알립니다

### 동양철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에서 알립니다.

《“제2회 한중일 청년학자 동아시아유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유학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이 주최하는 “제2회 한중일 박사생 국제유학 논단”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대학** | 성균관대학, 복단대학, 북경대학, 중산대학, 대만대학, 홍콩중문대학, 동경대학, 경도대학  
**시간** | 2018년 8월 28일(화)~30일(목)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회의실

###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과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소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중 양국에서 출판 예정인 「한중생태미학총서」의 출판기념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 2018년 10월 25(목)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회의실  
**문의** |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02-760-0257)

###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학연구소와 공동 학문후속세대 청년학자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학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의 교육목표에 따라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동경대학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6년 1월 학술교류를 시작으로 매년 계속하여 대학원생연구과제 발표를 중심으로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 연구의 교류를 유지하며 한·일 두 나라의 유학교육 연구를 선도하여 나아가 유교 국제화 거점학과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시간** | 2019년 01월 29일(예정)  
**장소** | 동경대학 아카몬 종합연구동 738호실

### 그밖에 해외학자 초청강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k21plus.skku.edu/confu/main/main.jsp>

알려드립니다

### 유학대학원 동양문화고급과정에서 알립니다

#### 《동양문화고급과정/유림지도자과정 수료식》

동양문화고급과정과 유림지도자과정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8년 2월 26일 14: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9

### 양현재에서 알립니다

#### 《2018학년도 양현재 여름 임간수업》

2018학년도 양현재 여름 임간수업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7월 1일(일), 3박 4일간(예정)  
**장소** | 병암서원(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6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과 양현재가 양도성의 성곽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걷는 “순성놀이”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문의** | 유학대학 홈페이지(<http://scos.skku.edu/scos>) 4월 중 공지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ttp://scos.skku.edu>

<http://gscs.skku.edu>